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서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은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낫과 밤이 따로없는 출기찬 전투를 벌임으로써 년간

생산능력이 5,000만권에 달하는 현대적인 학습장공장을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견본으로 생산한 학습장들을 보아주시고 학습장의 갈피에 몸소 뜻깊은 친필들도 남기시였으며 오늘은 충정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질좋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학습장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을 쓰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학습장 생산과 관련한 수백차에 달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찰했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서 질좋은 학습장들이 생산되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정말로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습장생산정형

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종이의 질도 좋고 제책도 흡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난령심리에 맞게, 파목별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만든 질좋은 학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

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찰하는데서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한해에 현재는 5,000만권, 앞으로는 1억 5,00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 기업관리의 정보화수준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공장에 포장용기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철도인입선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

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당에서 전적으로 말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강군이 지키는 나라이다. 상용무기에 의한 국지전이나 전면전, 전자전이나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과 필승의 전법을 완비한 인민군대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부강번영,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강한 장수 밑에 약줄이 없는 법이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천출명장들을 진두에 모시여 80여년의 행로를 승리의 역사와 전통으로 새기며 강군의 존엄을 떨치고 있다.

지난 항일대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상대한 일제는 청나라와 짜리로 씨아를 이기고 《대동아공영권》을 꿈꾼 렬강이었고 조국해방전쟁 때 대결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며 세계제패를 망상한 강적이었다.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천변만화하는 지략과 비범한 형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회세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유격전으로 《아시아의 맹주》로 활개치던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혁사적 위업을 이룩하였다. 혁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소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격전으로 정규군을 물리친 사실은 일찌기 없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대부분 작전과 소부대 활동, 동성서격전술, 일행천리전술, 선회전술, 망원전술 등 독창적이고 기묘한 전법과 전술로 유

강군이 있어 강국이 있다

격전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강군의 첫폐지를 자랑스럽게 썼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이든, 챔切尔, 덜레스, 맥아더, 럭치웨이, 클라크, 워커, 테일러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한다 하는 거물들과 장군, 전쟁상인들이 다 동원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과 남조선호전 세력의 침략야망을 걸음마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최

도 같은 정전속에서 치르어진 미국과의 대결에서 거둔 인민군대의 무훈 또한 혁혁하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판문점사건 등 적대세력과의 모든 대결에서 련전승하였다.

인민군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과 남조선호전 세력의 침략야망을 걸음마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였다.

정예강군의 위력을 더 높이 령을 위한 연습,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 탄도로켓발사 훈련, 신형반함선로켓발사 훈련,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 포병대집중화력타격훈련을 비롯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들마다 그이의 뛰어난 군사적지략과 평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그대로 비껴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반땅크유도무기시험,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전술로켓탄시험발사,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 시험을 비롯한 최신무장장비개

발과 보유에도 인민군대의 실전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그이의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도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배승의 경험을 가지고 그 어떤 형태의 현대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군대로 위력펼치고 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핵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책동에 대처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대응방식으로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인민군대는 적대세력을 멸적의 사정권안에 잡아넣고 징벌의 발사단추를 누를 시각만 기다리고 있다. 정의의 불벼락, 즉각적인 선제타격으로 침략의 아성과 본거지들을 재더미로 만들고 반미성전을 총결산하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보복의지이고 노도찬 기상이다.

위대한 혁장을 모시여 강군이 있고 강군이 있어 강국이 있다는 것은 조선인민군의 80여성상의 혁사가 확증하는 불변의 철리이다.

자기 행로우에 승리의 혁사와 전통을 면밀히 이어온 불패의 무적강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더 없는 궁지이다.

허도선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 수록

나라의 크고 작은 곳과 강하고 약함은 령도와 인구 수로 둘하지 않는다.

오늘 강국의 리상을 실현하는 동방의 나라 조선이 그것을 세상앞에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한세기 전만 하여도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식민지로 짓밟히던 조선이 오늘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경제와 국방에서 눈부신 전면을 창조하는 강대한 나라로 치솟아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선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선군으로 궁지에는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위용을 가슴 뿐만 아니라 자부하며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

오늘의 선군승리 노래에 담으려니 장군님 전선길이 어려와 목매입니다. 오성산 벼랑길 초도의 세찬 풍랑길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우리 다는 몰랐습니다 ...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 선군의 보검을 더욱 억척같이 벼려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악파도 같은 담대한 신념과 배짱, 영활한 지략과 파감한 공격정신으로 조국수호전을 승리에 이끄셨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자신께서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토로는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결은 적 없는 전고미문의 시련의

길을 그이께서는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자신의 모든것을 바칠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헤쳐가시였다.

바로 그 날에 군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 조국의 천리방선은 불폐의 성새로 다져지었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 통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선군의 보검이 있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배심든히 위대한 창조와 건설의 혁사만을 기록해왔다.

빨찌산식 강행군, 눈보라 강행군, 심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결사의 각오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혼신으로 수놓아진 장군님의 선군길에서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와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련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솔길이 드는

어 태울랐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자주와 정의의 핵뢰성이 지구를 뒤흔들었다.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 이의 선군령도에 대해 남조선 민권연구소의 한 성원은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선군정치를 통해 북을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인민군대를 강한 군대로 키우시였다. 우리는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체제를 지키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좌절시키는 정치임을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 하시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강성 국가건설의 틈틈한 토대를 닦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이 나라 높은 산, 험한 령들에 그대로 어려 길이 전해지고 있다.

김창철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벌리는 대규모의 『독수리 16』 북침합동전쟁연습의 포성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하시키고 있다.

적대세력들이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수단들을 통해 공화국을 어제보려하지만 이것은 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공화국을 위협하고 공갈하던 시대는 영영 끝났다.

공화국이 틀어쥔 자위의 핵은 이 세상에서 침략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정의의 힘이다. 미군이 천만부당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로 공화국을 계속 위협하는 한 공화국은 자위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

얼마전에 공화국에서 진행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도 그려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새로 개발된 발동기의 기술적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 시험은 모든 과학기술적지표들을 만족시키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현지에서 시험과

정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핵에는 핵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보다 위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에 보다 위력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본토를 비롯한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소굴이든 우리의 타격권안에 두고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 어리를 마음먹은 대로 짓ಡ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세계가 가져본 적 없는 다종화, 다양화, 초정밀화된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가지고 미국과의 판가리 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루하려는 공화국의 성전의지가 담겨져 있다.

적대세력의 선제공격기도에 보다 선제적이고 무자비한 타격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의지이다.

공화국은 침략세력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풍자 박산별 자위의 무기, 주체무기들로 지상과 공중, 수중과 해상 그 어떤 형태의 작전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시험사격을 통해 그 위력이 확증된 반땅크유도무기도 세계적으로 사거리가 제일 길고 명중성도 뛰어나 적들의 그 어떤 땅크, 장갑차들도 순간에 옛 가락처럼 만들수 있다. 남조선작전지대안의 대상물

훈련이자 군대

군사는 한번 쓰기 위해 천날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에 훈련은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였고 다음행동으로 신속히 이전하여 말은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원수님께서는 훈련을 떠나 이 다형종화된 일당백싸움군들로 싸움잘하는 군대를 상상할수 없으며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다고 하여 순간이라도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여 작전진투계획의 현실적 가능성과 전투능력

을 확정하는데 목표를 둔 훈련에 훈련은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였고 다음행동으로 신속히 이전하여 말은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원수님께서는 훈련을 떠나 이 다형종화된 일당백싸움군들로 싸움잘하는 군대를 상상할수 없으며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다고 하여 순간이라도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여 작전진투

본사기자

최명길

해외동포들의 그리움의 노래, 맹세의 노래

태양민족의 긍지를 노래와 춤에 담아

* 재일조선인예술단 *

얼마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이채를 띠는 공연무대를 펼친 예술인들중에는 재일조선인예술인들도 있다.

몸은 바다건너 멀리에 있어도 언제나 태양조국과 숨결을 같이 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뜻깊은 공연장으로 달려온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은 노래와 무용 『태양민족 제일일세』에서 이 세상 누구나 누릴수 없는 위대한 태양민족으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 한껏 터치였다.

소해금과 무용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와 『내 나라』 등 종목들을 통하여 그들은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백두산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온 세상에 빛내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총련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 래일도 있음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는 무용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털어잡았다.

『이역땅에서 사는것이 정말 헐치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몰아치는 온갖 탄압의 찬바람을

돌파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떠밀어주는 힘이 있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긍지, 이것 이아말로 이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려가게 하는 크나큰 힘의 원천이다.』고 마음속 신념을 웨치던 재일조선인예술인들.

지난날 나라를 빼앗겨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를 눈물속에 한탄만 해야 했던 재일동포들이 오늘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떳떳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무용은 세련된 틀동으로 잘 펼쳐보여주었다.

이역만리에서도 오직 태양만을 따르는 애국의 한길을 끽끗이 걸어가려는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노래 『내 마음 팔지 않으리』, 『이역의 아리랑』, 『바다에 전한 마음』도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은 종장 『원수님 따라 종련 앞으로』에서 고조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오늘의 강대한 조선이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안은 총련동포들의 억센 마음을 담아 무대 우에 펼친 재일조선인예술인들의 공연은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본사기자 김혜성



재중조선인예술단의 혼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 재중조선인예술단 *

원수님 따라 오직 한길로

봉화예술극장에서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생토록, 대를 이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만을 따라 끌까지 갈 재중동포들의 충정의 마음을 힘있는 무용을 통과 세련된 예술적 기량으로 펼쳐보인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이 무대에 펼쳐놓은 공연종목들은 단순한 음악적 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이역땅에서 애국의 대, 신념의 대를 억세게 이어나가려는 재중동포들의 굳은 신념과 맹세의 뜨거운 분출이었다.

본사기자 류현철

원수님 따라 오직 한길로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생토록, 대를 이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만을 따라 끌까지 갈 재중동포들의 충정의 마음을 힘있는 무용을 통과 세련된 예술적 기량으로 펼쳐보인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재중조선인예술인들은 노래와 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통하여 지구상에 나라도 많지만 자주로 존엄

높고 선군으로 위용

펼치는 어머니 내 조국이 세상에 제일

이라는 것에 소리높이 구가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재중조선인예술단의 혼성2중창 『우리 집사람』



재미동포 음악가 리준무가 지휘한 관현악 『발걸음』

태양네며 멀리에 있어도

* 재미조선인예술단 *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미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김원균명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소해금독주 『아무도 몰라』로 시작된 공연은 관현악 『발걸음』, 요한 슈트라우스작곡 『봄의 소리』,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이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들에는 시련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정의와 진리를 뭉친 공화국의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재미동포들의 굳은 신념이 깃들어 있다.

하기에 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아무리 갖은 발악을 다 해도 최후승리의 봄은 반드시 오

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잘 펼쳐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도따라 미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는 사랑을 안고 전선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아안은 처녀의 기쁨을 펼쳐보이는 공연은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에도 끄떡함이 없이 승리를 펼쳐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특히 재미동포 음악가 리준무가 지휘한 관현악 『발걸음』은 천등치는듯 한 통쾌한 멋이 있었다.

도입부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리듬이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예고하듯 점점 커다가 천만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겨례의 힘찬 투쟁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공연은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관현악의 중간부 분에서 울려나오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해빛 같은 그미소 그립습니다』를 통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해빛 같은 미소를 그리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수령님들의 유훈을 반들어 최후승리를 이루해 갈

굳은 의지를 홀륭히 형상한 공연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고영숙

울봄엔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며칠전에도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 내려서 땅을 푹 적시였다. 봄을 맞아 얼굴을 다시 내민 잔디와 푸른 잎새를 펼치는 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으며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기뻐하는 한해농사를 책임진 농민들이다. 지금은 파종기인데 때 맞춤 토지를 흠뻑 적셔놓았으니 말이다.

예로부터 봄비는 풍년비라고 일러왔고 봄철에 비가 내리면 그해엔 풍년이 든다는 격언이 전해져내려온다. 씨불임이 한창인 때 드넓은 전야에 내리는 비는 그야말로 꾹식의 새싹들에는 약비라 할수

있다. 지난해에는 수십년래의 왕가물이 들어 파종기에도 많은 논과 밭이 말라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봄비가 자주 많이 내려 올해 농사가 더 잘 될거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4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것은 늘 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의 풍년을 위해 저 하늘의 단비를 내려보내주시는것이라고 감동에 젖어 말하곤 한다.

단비, 참으로 의미깊은 말이다. 적대세력들의 고강도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이 땅에 찾아온 봄의 의미도 그 렇지만 올해의 풍년작황을 그

여주며 내리는 단비도 무심히 스칠수 없는 깊은 의미로 안겨와 종일토록 맞고싶은 4월의 봄비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시는 사랑의 절출기만 같아 생각은 끝없이 짚어진다. 생전에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여주시려 80고령의 낸세에도 협동별의 포전들을 걸고걸으시였다.

어느 해였던가. 겨우내 봄내 가물던 땅에 드디여 비가 있으랴.

내리던 그날은 4월 15일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비가 내리는데 것이 너무 기쁘시여 웃이 흠뻑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를 맞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생

일, 생일하는데 비가 오니 생일보다 더 기쁘다고, 비가 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시면서 그 날 종일 인민을 위하여 헌신 하시였다. 탄생일마저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가뭄든 땅에 비가 내리는것이 반갑고 기쁘시여 웃자락을 다 적시시던 그이의 환하신 미소를 어이 세월이 간다한들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복의 화원으로 가꾸어 가시는 이 땅에 더 좋은 앞날, 더 밝은 미래를 그려주며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봄비는 자강의 힘으로 더 좋은 래일을 마중가는 인민들의 생활에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리경월



재미조선인예술단의 소해금독주 『아무도 몰라』

만리마를 고려술



— 단전제련소에서 —

새로운 기적과 전변,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며 공화국은 비상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가닿으려 하는 리상의 메부리를 향하여, 그려보는 최후승리의 종착점을 향하여 노도쳐 도약하고 있다.

눈부신 변혁을 다계단으로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속도—그것은 만리마의 속도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옛적부터 말과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세상에 『기마민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마전투도』나 경주 『기마인물형명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고대 부여와 상무기풍이 중시되던 고구려시기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마민족』으로 꼽히였다.

우리 민족이 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말을 숭배하여 마을 입구에 말석상을 해놓기도 하였는데 마을에 승냥이가 자주 나타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말석상을 세웠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또 말석상을 『마장군』이라고 부르며 마을수호신으로

로 섬기기도 하였다.

말은 속도의 상징이다. 『롱마』라는 이름도 그렇고 옆구리에 날개가 있어 하늘을 훨훨 난다는 『비마』라는 이름도 남보다 빨리 내달리려는 조선민족의 억센 기상을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처럼 슬기롭고 용맹하던 우리 민족이 조선봉건왕조 500년 기간에 점차 국력이 약해져 나중에는 바다건너 외적에게 나라를 통제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암흑의 세월속에서 점차 잊혀지고 바래져가던 민족의 그 위용과 기상을 찾아주시고 멸쳐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항일 전의 총성과 더불어 이 땅에 드높이 울려퍼지던 백두산의 말발굽소리.

백마우에 올라 불비 쏟아지는 혈전장들을 누비시며 강도일제를 타승하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봄이 왔다.

미국의 북침전쟁도발과 무차별 공습만행으로 또다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변했던 이 나라에 수령님께서는 천리마의

기상을 멀쳐 세기적변혁을 안아오시였다. 남이 한 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 백 걸음을 내달려 따라앞서는 천리마정신은 공화국의 시대정신으로 되었다.

6만농력의 분파압연기에서 12만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도, 자기의 손으로 처음으로 끄락또르를 만들어내는 경이적인 성과도 바로 천리마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때에는 모든것이 천리마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웠다. 천리마조선, 천리마시대, 천리마선구자, 천리마작업반...

천리마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에 천리마휘장을 달는것을 가장 큰 공지와 영예로 여겼다.

오늘도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옆에는 1960년대초에 세워진 천리마동상이 있다. 만리대공을 향해 나래를 한껏 펴고 치솟아오르는 천리마는 그대로 조선의 기상을 상징하였다.

천리마의 억센 기개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영도에 의해 만리마의 기상으로 더 높이 멀쳐지고 있다.

언제인가 원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야 한다고, 장군님의 강성 국가건설구상을 네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네대와 네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1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멀친 전 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구나 만리마의 고삐를 훤 기수가 되여 부홍의 래일을 향하여 달리고있다.

적대세력의 제재압살소동을 짓부시며 어디서나 울리는 생산의 흐름 동음은 그대로 네굽을 안고 내달리는 만리마의 장쾌한 말발굽소리이다.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려 공화국에서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오늘과 래일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하는 비약의 시대가 멀쳐지고 있다. 최근 몇년에 간에만도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인민들이 사는 현대적인 새 거리가 1년에 하나씩 생겨났다.

얼마전 회한한 려명거리 를 올해중으로 일대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해 가르쳐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선의 건설속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이라고 하시였다.

만리마는 세상에 없는 조선의 만리마이고 그 기상은 찬란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리는 김정은조선의 눈부신 전변의 기상이다.

강영성

이요.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한가정, 한식술을 이루고사는 우리 사회에서 통첩이가 가면 어디로 가겠소. 성격이 거칠어져 일시 엉드레질을 했겠지만 그리고 달리 살 수야 없지 않소. 저애가 부모정이 얼마나 그립겠소. 우리가 통첩이의 친아버지가 되여줍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통첩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그를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하겠다며 데리려 온것이었다.

그 날 저녁 통첩이는 계정훈지배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다. 지배인과 공장일꾼들이 마련해준 새 내의와 새옷을 입고 푸짐한 식탁을 마주했으나 통첩은 눈앞이 흐려와 수저를 들수 없었다. 따뜻한 방안, 폭신한 이불을 덮고 누웠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꿀꿀해있는데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세살적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저 녀석의 버릇이 쉽게 없어질까요? 괜히 속이나 태우지 않겠는지…』

알지 못할 사람의 목소리에 이어 지배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통첩이는 우리 조국의 품에서 자란 청년

효평양을 맹회를, 맹광을

민족의 향취 풍기는 고려술



삼술에 당분을 넣거나 마신후 후과가 좋지 않은 점이 있었다.

대동강식료공장에서는 다년간의 연구끝에 종전과 달리 당분을 전혀 쓰지 않고 인삼의 쓴맛을 없애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이 바로 찹쌀로 만든 누룽지에 의한 술생산방법이다.

누룽지에는 필수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영양가가 높고 지방분해촉진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 선조들은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잘 넘기지 못하고 게우는 열격증을 누룽지로 치료하였으며 누룽지로 만든 숭늉을 즐겨 마셔왔다.

누룽지는 뜬들이기 시작한 밥을 높은 온도로 살짝 태워 만드는데 밥이 익는 과정에 영양성분이 아래로 내려와 물린 찹쌀의 전분은 높은 온도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된다. 살짝 탄 전분의 구수한 맛과 포도당의 단맛이 어울린 누룽지의 고소함은 그 어떤 향신료를 가지고도 별 수 없는 고유한 맛을 풍긴다.

대동강식료공장에서는 누룽지의 특이한 맛과 향기로 인삼의 쓴맛을 가리워 줄으로써 고유한 인삼의 맛과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잘 살아나게 하며 지난해 말에는 국내최우수제품들에 수여되는 12월 15일 품질메달을 수여 받았다.

지금 대동강식료공장에서는 고려술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획을 넣고 있다.

허성철



습성은 쉽게 고쳐지지 못했다. 그는 로동생활과정에 동무들과 마찰을 일으키곤 하였다. 그런 그를 두고 제 버릇 어디 가겠는가고 수군수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계정훈지배인의 일파는 변함이 없었다. 짬만 있으면 통첩이의 학습정형을 루어하고 새로 나온 소설책도 가져다주고 책읽은 감상도 들여주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허리가던 어느날 통첩은 갑자기 목이 아프고 심한 고열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

두산으로 올랐다. 벌써 두번째로 오르는 백두산답사길이었다. 사납게 훠물아치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받아 헤치는 지배인의 손길에 이끌려 한걸음 한걸음 백두성산으로 오르며 통첩은 사상정신적으로 또 한번 크게 성장하였다.

이렇게 하루하루 허리가던 어느날 통첩은 갑자기 목이 아프고 심한 고열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

았다. 몸관리를 잘못한탓에 고질처럼 앓던 편도선염이 도졌던 것이다. 호실에 훌로 누워 풍광 앓고 있는데 갑자기 이마가 선뜩해지는것이 아닌가.

『어이구, 온몸이 불덩이 같구만.』 하고 덴겁하는 사람은 그가 앓는 속에서도 그처럼 보고싶던 계정훈지배인이였다. 뒤따라 의사선생과 함께 지배인의 안해가 숨이 끊어 달려왔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왜 물랐을까요.』

마치 자기네 잘못이나 되는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지배인내외의 진정이 가슴에 미쳐와 통첩은 슬그머니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그날부터 지배인내외

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원한 국수를 받아오고 향기로운 사파도 조각내어 입에 넣어주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며칠후 열이 떨어져 혼근히 잠에 들었다가 새벽

녁에 눈을 뜨니 계정훈지배인이 물에 꿀을 타가지고 근심이 가득 실린 얼굴로 자리를 지켜보고있지 않는가. 자기에게서 걱정어린 눈빛을 떼지 못하는 지배인의 얼굴우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덧놓여 안겨왔다. 공장에서 제일 바쁜 몸임에도 자기를 위해 며칠밤을 꼬박 새우다니, 눈여겨볼 수록 꼭 친아버지 같았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를 할 수 없는 걱정이 짜차올랐다. 그는 울고있었다. 두불로는 눈물이 줄지어내리고 있었다. 통첩은 앓던 사람같지 않게 지

배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아버지!』 하고 목에 불렀다.

잇을수 없는 그날 아버지구실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멋쩍게 웃던 지배인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굽이 젖어든다. 하지만 통첩은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배인을 두고 종업원들이 너나없이 무한한 아버지 같다고 말하는 것을 한두번만 목격하

지 않은 그다. 공장에서 차려준 결혼상을 받고 가정을 이룬 리현우, 김선희, 리영화를 비롯한 종업원들도 지배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지 않는가.

친아버지와도 같은 계정훈지배인과 함께 일해오는 나날에 공장적으로 소문난 혁신자로, 발명가로 어엿하게 성장한 통첩이다.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자기처럼 부모잃은 사람들은 사회밖으로 영영 밀려나 외로움과 고통을 벗삼으며 불행의 눈물만을 흘리고 있을것이다.

허나 자기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고싶은 사람들이 늘어만가니 서로 돋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않는 자식에게 더 각별한 정을 쏟아붓는 친부모처럼 마음속 그늘을 안고 사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어버이품에 자기가 안겨 있음을 통첩은 행복하게 느끼고있었다. 한없이 넓은 그 품에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계정훈지배인도 안겨 사는것 아니야.

본사기자 흥범식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벌이는 반공화국모략궤변의 진상을 파헤친다

조선국제정치문제연구소 론고장

자주 존엄높고 선군의 막강한 위력으로 위용떨치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우리 공화국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은 지금 인류가 우러르는 희망의 등대로, 온갖 악을 징벌할 정의의 기치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 빛나고있다.

그럴수록 뱀이 뒤틀리고 악에 치쳐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영상에 감히 먹칠하고 헐뜯어보려는 잡스러운 것들의 비렬한 음모와 모략책동 또한 국도에 달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모든것을 외곡하고 부정하면서 누가 믿든 믿지 않은 별의별 악담과 요설들을 더욱 미친듯이 쏟아내고 있는것이 그 집중적발로이다.

우리를 『악마화』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내고 남조선피뢰들과 일본반동들, 서방세계가 앵무새처럼 반아외우며 확대하고 변종시켜 세계에 퍼뜨리는 그 형형색색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궤변들을 따져 놓고 보면 『도발과 위협』, 『국제법과 유엔결의에 대한 위반』, 『체제불안정』, 『병진의 길은 민생파탄과 자멸의 길』 등 몇가지로 압축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정치현실과는 전혀 비슷치도 않은 완전한 허구이고 철면피한 거짓이다.

원래 정의에는 변명이 필요없고 승자는 말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끊임 없는 반공화국적대선전에 넘어가 진실과 허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뒤바뀌고 세계정치계가 이에 통락당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기에 우리는 그 위험천만하고 비렬하기 그지없는 종상모략과 궤변의 진상을 파헤쳐 준렬히 론고한다.

1. 우리의 그 무슨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매일같이 입만 벌리면 우리의 그 무슨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끊임없이 떠벌여대고 있다. 이야말로 흑백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파렴치한 날강도적 궤변이다.

지금 적대세력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핵보유와 군력장화조치들은 물론 평화적인 지구판 측위성발사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떠들고 있다. 저들내부에서 싸이버테로나 해킹사건이 일어나도, 무인기 하나가 떨어져도 『북의 도발』이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천안』호침몰이나 지뢰폭발 등 진상을 해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해도 무턱대고 우리의 『도발』이라고 몰아붙이는것이 이제는 상습으로 되어버렸다. 지어 우리 가 생물농약 한가지를 연구개발해도 『최신란저균병기』라며 미국과 남조선을 『위협하는 도발행보』라고 어처구니없는 딱지를 붙이는 형편이다. 이 시각도 바근혜폐당은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우리에 의한 『GPS전과교란』이니 뭐니 하며 『북도발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쳐쳐대고 있다. 이자들은 북 『도발』과 『위협』에 환장한 나머지 우리가 저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행위에 대한 평화 한마디 발표해도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언행』이라고 우겨대는판이다.

미국이 그토록 열을 올리며 우리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던 『쏘니 피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이 얼마전 외국에 있는 어느 한 해커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져 망신당한 것은 적들이 말하는 우리의 『도발』과 『위협』이라는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짓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파연 이들이 『도발』과 『위협』의 의미나 알고 이렇듯 입이 닳도록 고야대고 있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도발이란 부정적행동이나 범죄적사건을 버르집어 일으키는것 즉 남을 고의적으로 걸고들거나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 위협이란것도 남을 협박하거나 위험하게 만들어 마음을 놓을수 없게 한다는 뜻이다.

이 사전적정의의 그 어디에도 누구를 걸고들거나 해치기는커녕 오로지 정의로운 자기 발전의 길만을 모색하고 끊임이 걸어가며 오히려 전대미문의 온갖 위협과 공갈에 단신으로 맞서나고 있는 우리 공화국과 함께 시킬 단 한점의 여지도 없다.

물건대 어떻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침략정책과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적핵보유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되는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무 문제로 되지 않는

들의 흥악스러운 정체가 감추어지고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가장 범죄적인 반공화국도발의 정당성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가해온 특등도발자, 이미 백번 피고석에 올랐어야 할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피뢰파당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범국도 아닌 우리 나라에 38°선을 그어놓고 국토를 분열시킨것도 모자라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라 창건된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에게 『적성국』이니, 『데로지원국』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등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을 계속해왔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판문점사건 등은 미국이 직접 감행한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남조선에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들이밀어 세계최대 규모의 각종 북침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 평화를 유린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자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지어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 『집무실타격』도 서슴지 않겠다고 날뛰는자들, 이 흥악무도한 도발자들이 주객을 전도하여 도발과 위협의 감투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발악하고있으니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예로부터 죄있는자가 겁부터 먹고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국제사회에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목이 쉬도록 떠들면서 집요하게 뮤포시키고있는것은 더욱더 강대한 힘을 갖추어나가고있는 우리가 국도로 두렵기때문이며 오합지졸을 그려모아서라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매장시켜보려는데 추악한 목적이다.

하지만 파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집요하게 『북도발론』을 설파하고 사상례없이 악랄한 『제재』 소동에 광분해도 우리의 정치적지위와 위상은 최절정으로 상승하고있으며 우리가 걷는 자주와 정의, 선군의 길을 따라서는 대렬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도발』과 『위협』으로 포장된 반공화국모략씨나리오는 이미 낚을 대로 낚고 궤질대로 궤진 천덕꾸러기각본이 되었으며 이에 매달릴수록 세기의 웃음거리로 전락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미국과 그 졸개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 우리의 그 무슨 『국제법과 유엔결의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미국과 적대세력이 그 악스럽게 걸고드는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국제법과 유엔결의에 대한 위반』이라 는것은 국제정치질서의 기초도, 본질도 모르는자들의 얼토당토않은 생트집이다.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범들의 총체를 국제법이라고 하며 이것은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다. 인류사회가 국제법을 만들 어낸 목적은 폐출과 언어, 풍습과 문화,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이 서로 다른 형형색색의 나라와 민족들이 살고있는 이 지구상에서 있을수 있는 갈등과 대립, 모순과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는데 있다.

창건이래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가장 견실한 국제주의적립장에서

국제법과 유엔현장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준수해온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는 언제 한번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그 누구의 리익을 침해해본적도 없고 그 어떤 불순한 모의판에 가담해본적도 없다.

오히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형제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어 국제사회의 선망과 동경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걸핏하면 우리에게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란폭하게 위반』한다는 당치않은 감투를 씌우면서 국제사회에서 용납될수 없는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악의에 차서 헐뜯어대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저들의 강권과 전횡

이니, 『결의』니 하는것들을 제멋대로 조작해내고 휘두르는 미국과 그 추종분자들이 저지르고있다.

우리가 일국의 탐욕과 침략적야망에 따라 꾸며지고 복종되는 이런 강도적인 『법』과 『결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재와 발전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것으로 되며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과 리익을 완전히 포기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해온 온갖 반공화국제재법과 『결의』들을 단호히 배격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각과 냥심이 있다면 누구이든 대답해보라. 이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범죄국가는 과연 어느 나라인가.

자국의 폐전과 무한대 한 탐욕만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며 인류우에 군림하려는 미국인가 아니면 그 어떤 강권과 압력에도 굴함없이 자주와 정의의 길을 끽끗이 걸어가는 우리 공화국인가.

결론은 명백하다. 만민평등, 만국평화의 국제법과 협약은 안중에도 없이 이 지구를 악육강식의 장글로 만들고있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이 다름아닌 비정상국가, 강제국가, 불량배국가이다.

인류에게 재난과 불행만을 몰아오는 악의 무리들은 저들이 구축해놓은 오늘의 세계정치질서가 절대불변한것이 아니며 보복과 정의의 징벌은 피할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3. 우리의 현실을 외곡날조한 『체제불안정』설에 대하여

미국과 그 졸개무리들은 찍하면 이런저런 모의판에서 『북체제불안정』설을 외워대며 기정사실처럼 뮤포시키고있다.

미련한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만 사물을 본다고 한다.

미국과 피뢰파당이 우리의 존엄높고 굳건한 사상과 제도에 대해 걸핏하면 『불안정』이니 뛰니 하고 떠드는것은 우리의 『제도봉기』를 수십년동안 너무도 학수고대하던 나머지 저들의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면서 새 꿈속에서 내뱉는 헛나발에 불과하다.

미국과 피뢰파당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놓고도 우리의 일시적인 고난이 『체제로부터 산생』 되었다고 꾸며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파론』과 『급변사태』설을 펴뜨려 우리 공화국이 당장 무너질듯이 악선전해왔다.

그들은 우리 제도의 『불안정성』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야만국가』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온갖 악담들로 비방중상하다못해 자기 고향과 혈육마저 버리고 도망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주민불안과 동요』를 조장해보려고 비렬하게 날뛰고있다. 핵시험과 위성발사는 물론 정상적인 군사훈련마저도 『불안정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것』이라고 얼토당토않게 떠벌이는가 하면 군중시위와 축포발사, 해불행진과 같은 기념행사들도 『체제파시』와 『동요하는 민심결집』을 위한것이라고 획일수설하고있다.

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무지의 극치이며 망두석도 비웃을 가소로운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불안정한 현상이나 물질은 오래동안 유지될수 없으며 파괴되거나 안정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것이 부정할수 없는 과학적리치이다.

이 명백한 현실을 한사코 외면하고 그 누구의 『불안』과 『동요』, 『혼란』에 대해 소란하게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얼마나 철면피하고 뻔스러운짓인가.

낮이고 밤이고 그 누구의 『체제봉파』개꿈에 계속 빠져있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

(6면으로 계속)

시간도 정의도 조선의 편에 있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지금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다.

세계가 『보병총과 원자탄파의 대결』로 평한 조선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핵과 핵의 대결로 변한 조미사이의 마지막 대결.

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있다.

『전략적실패』로 끝난 『전략적인내』

미국의 현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전략적인내』이다. 『세계경찰』 행세를 하며 유엔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간섭과 제도붕괴를 일삼아온 미국이 유독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이른바 『전략적인내』라는 것을 자기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는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무시』하는 척하면서 경제적제재와 고립압살, 군사적위협과 자유화 바람 등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공화국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린지도 어느덧 8년 세월이 흘러 오바마행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이르렀다.

하다면 파연 『전략적인내』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2016년에 들어와 온 세계의 시선은 조선반도로 쏠리고 있다.

1월 6일에 진행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 성공, 2월 7일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각종 탄도로켓들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공개, 대륙간탄도로켓의 대기권재돌입기술의 완성, 대

(5면에서 계속)
히 안은채 다름 아닌 미국과 피뢰페당 하지만 70년, 아니 700년이 흘러도 자신이 역사의 무덤속에 남먼저 처박히게 될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4. 병진의 길을 『민생파탄과 자멸의 길』이라고 줘쳐대는데 대하여

미국과 박근혜당이 계거품을 물 는가. 미국의 압력과 위협에 굽복한 나라들에서 주권이 강탈당하고 평화가 유린되며 인민은 집단적인 피난민, 류탕아가 되여 끝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을...

지난해 뛰르끼예의 해변가에서 발견된 수리아피난민아기의 시체가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실이 있다. 서방은 이를 두고 『페난민수용대책』이니 뭐니 하고 야단법석을 떨어댔지만 이 참혹한 죽음이 고발하는 진실은 결코 페난민구제 문제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국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국가정치의 기본이며 그 책임과 본분을 포기하는 것은 용납 못할 대죄악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초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 어떤 민생에 대해 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국가정치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과 발전이 무엇으로 담보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천치들의 떠벌임에 지나지 않는다.

무릇 국가정치에서 근본중의 근본은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과 안전을 자기의 힘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다. 나라가 굳건해야 인민들의 삶도 보장되고 그 운명도 지켜지는 법이다.

지금 세계가 눈앞에서 보고있지 않

히 안은채 다름 아닌 미국과 피뢰페당 하지만 70년, 아니 700년이 흘러도 자신이 역사의 무덤속에 남먼저 처박히게 될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대결에서 승자의 열쇠는 누가 쥐고있는가. 그 열쇠를 바로 정의를 대변하고 최강의 힘도 갖춘 조선이 쥐고있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도 명명백백해진 사실로 되고 있다. 더욱 기 시간이 흘러수록 그 진리는 더욱 확정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공화국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제재결의』를 조작하였으며 『대통령행정명령』과 『금융제재』 등도 발동하였다. 하지만 적대세력들의 이처럼 악랄한 재재와 봉쇄속에서도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앞으로만 전진함으로써 오늘날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하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악관으로부터 국회와 군부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전략적인내』 정책이 완전실패했다는 아우성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얼마전 미합동참모본부의 장은 『북조선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를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북해공우주를 넘나들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파의 무력충돌을 생각하면 재래식 무기능력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싸일, 싸이버 공격, 우주공격능력을 감안해야하며 북조선과의 전쟁에 대

는 진리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정치계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의 『전략적인내』 정책은 『전략적실패』로 끝났다』, 『오바마대통령이 『전략적인내』를 내세워 시종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조미관계의 주도권을 조선측이 행사했다』는 한탄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울려나오고 있다.

미국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표현인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는 『황금파도 같은 시간』을 공화국에 통채로 섬겨바친 『전략적실패』이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보여 주는 진리이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오늘날 공화국이 도달한 국력의 높이와 이 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은 전적으로 공화국이 틀어쥐고온 병진로선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

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로선은 자위적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싸이버사령부가 동원돼야 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런가하면 미륙군참모총장은 『북조선과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조선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미국과 카나다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국회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희비극이 련이어 펼쳐지고 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유엔 『제재결의』를 행을 떠들면서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해온 저들의 운명을 돌려세우기 위해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봄부림도 병진로선의 기치아래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오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을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적위력의 강화와 경제강국건설의 포성으로 짓부서버리며 질풍노도와 같이 나아가고 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살소동의 평음을 70일 전투의 장엄한 전군으로 짓부서버리며 인민경제 여려 부문에서 시대를 놀래우고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키는 대기적, 대변혁을 창조하고 있다.

철의 기지들마다에서 쓸어져 내리는 주체의 쇠물폭포며 대진재공업기지의 위력을 파시하며 끊임없이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세멘트, 현대화된 설비들마다에서 힘없이 흘러나오는 식료품들과 만선의 배고동 소리 높이 이채어경을 펼친 포구들.

얼마전에는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의 언제가 거연히 일떠서고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의 과학종시, 인재종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을 힘 있게 파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건설이 온 나라의 관심속에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폭풍쳐내달리고 있는것이 바로 오늘 공화국의 현실이다.

자력자장의 힘으로 그 어떤 제재와 봉쇄, 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부시면서 위대한 기적과 자랑찬 성과를 창조하는 이 거세찬 전군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그 시간은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억세게 나아가는 정의와 진리의 편에 있다.

정의도 공화국에 있고 시간도 공화국의 편에 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달리는 공화국은 달파 해가 아니라 분분초초 솟구치고 더욱 강해지게 될것이다. 조선과 미국사이의 세기를 이어오는 대결전은 지금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려가고 있다.

각종 탄도로켓들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을 미국은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다. 종당에 굽어나올것은 조선이 아닌 바로 미국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오는가. 하긴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도 우리 공화국에 희한한 선경이 일떠설 때마다 『특권층』을 위한것이라느니, 『상류층』만이 살것이라느니 하고

썩하면 나발질하였지만 이제는 감히 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특권층』과 『상류층』이 다른가? 그물망을 쳐놓고 있지만 그야 말로 오산중의 오산이다.

우리의 핵이 우리자신의 신념과의지, 담력과 배짱, 재능과 기술에 의해 탄생하였듯이 우리의 경제도 신성하고 위대한 우리의 자강력에 의해 비약상승하고 있다.

가소롭게도 그 무슨 『삶의 질』이나,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하는 망발을 불어대는자들은 이 땅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의 정수를 똑똑히 보고 입부리를 바로 놀려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인민최우선, 인민절대시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제일 멀고 외진 곳, 제일 아픔이 크고 고생을 많이 겪어온 사람들,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부터 따뜻한 자애의 품에 품어안으시고 온 나라를 행복의 화원으로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사랑과 인덕의 태양이 계신다. 우리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그 어떤 정치적의지나 령도자의 의무이기 전에 자신의 향으로, 천풀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문명과 세상에 부럽없는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당파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이처럼 가슴뜨겁고 격동적이며 환희로운 현실앞에서 감히 그 누구의 『민생』이니 뭐니 하는 개소리가 나온다. 하긴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도 우리 공화국에 희한한 선경이 일떠설 때마다 『특권층』을 위한것이라느니, 『상류층』만이 살것이라느니 하고

썩하면 나발질하였지만 이제는 감히 입도 열지 못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특권층』과 『상류층』이 다른가? 그물망을 쳐놓고 있지만 그야 말로 오산중의 오산이다.

조선 국제 정치 문제 연구소

민심에 역행하는 역적무리들은 추호의 용서 없이 단호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0대 피뢰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당은 집권후 반인민적 악정과 『유신』파 쇼도재부 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 등을 일삼아온 추악한 행적과 만고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내외여론들은 이번 선거를 박근혜에 대한 격노한 민심이 폭발한 『무혈선거혁명』으로 평하면서 청와대 안주인은 더 이상 맥을 출수 없는 산송장, 『식물대통령』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신랄히 조소하고 있다.

이번 피뢰국회의원선거는 박근혜가 집권 3년간 혁대 통치 배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반역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완전한 버림과 저주를 받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측도판이였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저들의 반역정책이 선거참패와 무관한듯이 변명하면서 총파산의 막다른 궁지에

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지난 18일 피뢰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 나타난 박근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일하는 국회』가 되어 달라느니, 『중단없는 개혁추진』이니 뭐니 하고 철면피하게 돌아됐다.

그런가 하면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조선반도를 핵전쟁발발의 최극단

에 이르게 한 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할 대신 『북의 돌발적도발』에 대비한 『여야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채

쳐대면서 반공화국대결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할 교활한 속내 도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한편 박근혜는 초상집이 된

『새누리당』안의 심복들을 내

세워 제년이 쫓아낸 무소속당

선자들을 긁어모아 제1당의 지

위를 강탈해보려고 날뛰고있

는가 하면 피뢰검찰을 사축하

고있다.

면서 야당소속 당선자들을 물 아내고 민주개혁세력을 위축 시켜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박근혜의 이러한 발악적책동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로그적인 부정이고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넘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 피뢰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는 『선거의 너왕』이라는 환각에 빠져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옷을 걸치고 『야당을 심판하라.』느니, 『국회를 물갈이하라.』느니 뭐니 하며 어기저기를 돌아쳤으며 전례없는 『북풍』조작놀음까지 벌리면서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때문에 내외여론은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패배이기 전에 박근혜의 오만과 불통, 무능과 독선에 단호한 징벌을 내린 것이라고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가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낄줄 알고 초보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악에 대해 글백번 엎드려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개꼬리 3년이 되어도 황모 못된다고 민심의 심판을 받고 만신창이 된 지금에 와서도 유독 박근혜만은 청와대

안방에 들어박혀 남조선민심이 배척하고 경멸하는 반역정책들을 계속 불들고 살길을 열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더우기 박근혜당이 극악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내고 민족의 머리우에 더욱 위험천만한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려고 발광하고 있는 것은 민심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남조선 민심은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면서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북남

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박근혜당의 동족대결정책에 준엄한 사망선고를 내리였다.

그것은 박근혜당의 손발이 되어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던 출개들이 출줄이 락선되고 보수파당속에서 까지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떠드는 바람에 보수총민심까지 등을 돌렸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는 사실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이 다 반대하는 대결정책을 한사코 고집하고 있으니 박근혜야말로 세상이 자기를 얼마나 경멸하고 저주하는지 모르는 역겨운 인간오작품, 온 겨레에게 화난만을 몰아오는 살기면 마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반 사실은 『유신』파와 동족대결에 미칠탈대로 미쳐 반인민적 악정과 반통일대결책동을 일삼는 박근혜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에서 달라질것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북남관계는 더욱 더 예측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

닫게 되고 온 겨레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민심에 도전하면서 천하의 악행을 덧쌓고있는 박근혜당의 독선파 독단, 전횡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동족대결을 극대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험천만한 폭발계선으로 몰아고있는 특등재 앙거리인 박근혜당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거해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박근혜당은 민심에 도전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인민적 악정과 동족대결에 매달릴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더 큰 저주와 규탄속에 종국적파열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주제 105(2016)년 4월 21일

평양

선거 참패로 심화되는 내부 갈등

모략의 소굴은 청와대이다

남조선의 보수 언론들에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 조작, 각색한 각종 보도와 소식들이 차넘치고 있다.

매일과 같이 그 무슨 제재에 의한 『북주민들의 불안』과 『체제 불안정』, 『경제침체』와 같은 『북 내부소식』들과 『전쟁준비태세 돌입』, 『테로전담세력 집결』, 『GPS교란시도』, 『북에 의한 해킹』과 같은 보도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

심지어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대병력이 배치되고 『평양점령계획이 작성되었다.』느니 따위의 계획들도 내돌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돌아가는 온갖 북관련모략보도들이 청와대의 치마두른 안주인의 지령에 의해 조작되고 펴려진다는것이 증명된셈이다.

모략날조의 진상은 박근혜가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실현해보려고 얼마나 비렬하고 너桀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비방종상과 각종 모략선전이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악랄

오는가 하는것이다. 정보원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물샐틈 없는 감시와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으로 공화국의 현실목격과 청취가 철저히 차단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이따위 어처구니없는 나발들이 나울레는 오직 한군데이다.

이미 피뢰정보원이 조선반도주변국들에 『특별팀』을 파견하고 공화국에 대한 각종 모략자료들을 꾸며내여 진실처럼 펴리고있다는것은 폭로된 바있다.

여기에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을 비롯한 모든 피뢰정부기관 요원들이 망라되어있으며 이를 청와대에서 파견한자가 종지휘한다고 한다.

그러니 남조선에서 돌아가는 온갖 북관련모략보도들이 청와대의 치마두른 안주인의 지령에 의해 조작되고 펴려진다는것이 증명된셈이다.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끝난 이번 『국회』의 원선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것은 집권자인 박근혜이다.

한것은 이번 선거가 아당이 내든 『정권심판』 대집권자와 여당이 내세운 『국회(야당)심판』 간의 대결이였기때문이다. 『선거의 너왕』이라고 으시대던 박근혜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악을 쓰며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민심은 거꾸로 『정권』에 호된 심판을 내렸다.

선거전 인터넷에는 한 야당후보가 박근혜를 총으로 저격하는 선전물이 내걸려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 광고대로 박근혜는 민심의 『총』에 맞았다.

왜 맞았는가. 독재와 무능, 악정이 자

하게 감행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집권기간 남조선사회를 파쑈와 폭압의 란무장으로,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사람 못살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데 대한 쌍이교상인 민심의 분노를 북남대결과 반공화국전쟁책동에로 돌리며 미국과 입을 맞추며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그 어떤 『효과』라도 내는듯이 여론몰이를 해보려는것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아무리 외폭날조에 발광해도 눈부신 비약으로 활기찬 공화국의 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곰은 쓸개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허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는 모략과 음모만을 내뱉는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김유성

『국회』의 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새누리당』의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 김무성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총사퇴하였으며 당내부는 초상난 분위기이다.

당상총부의 공백상태를 메우고 사태를 수습한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내주도권 장악을 위한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싸움을 촉발시키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기 『국회』의 원내대표 선출과 해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총괄하는 당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를 주도하게 될 기구인 것으로 하여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암투는 그야말로 치렬하다.

그들은 『선거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날 지도부는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내 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원유철의 사퇴를 완강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선거패배를 책임지고 물려날 지도부는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고 반발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들고나왔다.

비박계는 당규정을 내들며 원내대표 원유철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하나 친박계인물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내주도권을 계속 장악하자는 것이다.

선거를 죽탕으로 만들어놓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친박계의 행동에 비박계가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비박계는 즉각 『총선거참패의 원인제공자』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다시 등장하였다.

이번 선거참패책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박계가 또다시 터져나오는 계파싸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번 선거참패책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박계가 또다시 터져나오는 계파싸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원선거 이후 『새누리당』이 내부 갈등과 계파싸움으로 더욱 쪘어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반역당이 치할 가련한 운명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리면서 『당의 혁신과 운명의 주도권을 당중심으로

로 옮겨야 한다.』며 현 집권자와의 거리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민심의 버림을 받아 산송신세가 된 박근혜는 더 쓸모가 없으며 이번 기회에 당에서 박근혜의 인물들을 제쳐놓고 당의 주도권을 틀어쥐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또다시 터져나오는 계파싸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번 선거참패책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박계가 또다시 터져나오는 계파싸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였다.

비박계는 선거의 참패원인이 『당내에 민주주의가 없는데 있다.』고 언급하며 박근혜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리면서 『당의 혁신과 운명의 주도권을 당중심으로

로 옮겨야 한다.』며 야당들을 중상하고 『북풍』사건들을 조작하여 선거에 이용하려 하였지만 그 결과는 완전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계속 취해온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고집할 경우 『정권』의 임기마저 채우지 못할것이라고 글은 경고하였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자주민보』와 같은 진보언론을 강제폐간하는 한편 『세월』호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을 『색갈론』으로 탄압하며 국민의 권리침해하는 박근혜세력에 대한 민심의 항의가 이번 선거에서 립증되었다고 글은 밝혔다.

또한 해외를 돌아치며 동족을 걸고들고 암살을 구걸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결의 길에 나서라고 글은 요구하였다.

글은 현 『정권』이 보수언론 등을 통해 거짓과 허위정보들을 퍼뜨리

만평 고역살이



초한 비참한 운명이었다. 선친적인 독재기질로 집권하자마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민심을 우롱하며 온갖 전횡과 파쑈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박근혜였다. 『북을 무릎꿇게 하겠다.』는 독기를 뿐이며 대북밀으로 떨구어뜨린 박근혜이다.

아무리 제재 모의를 해봐야

얼마전 박근혜당은 미일상전들과 함께 남조선에서 《외교차관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까마귀 하루에 열두번 울어도 송장먹은 소리라더니 이번에도 그 무슨 제재와 압박, 국제공조타령이였다.

이것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굴함없이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곳곳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기상에 다급해난 적대세력들의 맥빠진 너두리질에 불과하다.

너절한 제재놀음으로 공화국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 일심단결을 허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

공화국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이 장장 70여년간 끊임없이 감행되여왔지만 승승장구해왔으며 오늘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과 존엄을 만방에 펼치

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세계여론들은 《제재로 북조선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시급한 방향전환을 필요로 하는 대조선적 대시정책》, 《제재는 북조선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합치고 있다.

그 어떤 제재와 압력소동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힘찬 발걸음

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날 세인이 인정하는 철의 진리인 것이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공화국에 대한 그 어떤 제재와 압박은 무용지물일 뿐이며 오히려 그것은 도발자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멸망을 재촉하게 될뿐이라는것을 말이다.

리국철

《민심은 박근혜를 철저히 심판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의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패거리들에 대한 단호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아집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의 역사적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오

만과 아집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무능과 고집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뜻이 모이면 후안무치하고 불의한 《정권》을 얼마나 심판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도 《박근혜 끝장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4.13총선거를

통해 민심은 박근혜를 철저히 심판하였다고 하면서 민생파탄, 《북풍》조작, 굴종외교 등을 일삼는 것으로 하여 달리는 될수 없다고 밝혔다. 굴은 날로 심화되는 집권말 기통치력마비로 현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새누리당》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굴은 현시대의 진보는 자주통일,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민중을 반미반박근혜투쟁으로 추동하는 정치세력

을 내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도 박근혜가 이번 선거에 로끌적으로 개입하며 《야당심판》을 웨쳤으나 국민은 도리어 박근혜를 심판하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공동으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세월호》 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날로 본격화하고 있다.

본사기자

산송장의 역겨운 노두리

최근 남조선의 《정부》와 군부당국이 《북의 5차지하핵시험 가능성》이니 뭐니 하며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 있다.

남조선당국자 역시 《국회》의 원선거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는 《대북제재의 효과》와 《북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 떠들고 있다.

그만큼 나이도 먹고 쓴맛을 봤으면 이제는 리성을 되찾고 입간사도 바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보수집권세력이 리사를 보기 드문 대참패를 당한 것은 바로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여 북남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극악한 동족대결팡인 박근혜가 집권하여 오늘에 이르는 기간 북남관계에서 남은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폐쇄되고 북남관계는 하늘로 날아났다. 쌍방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이 조성되었다.

무지무능하고 천하바보인 박근혜는 미국과의 공조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공화국이 주저앉을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북남관계를 푸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는 길을 선택하였다.

박근혜는 이번 《국

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

공화국핵소동과 제재, 《인권》모략과 베라살포, 핵전쟁불장난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는 좌절을 당하고 종당에는 오늘과 같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경제는 죽탕으로 만들고 민생은 도탄에 빠뜨린것도 모자라 시대착오적인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쟁기로 남조선인민들을 불안과 전쟁 공포에 몰아넣고 한시도 말편장을 못자게 만든것이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 패거리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북남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현 보수집권세력에게 단호히 참패의 쓴맛을 안긴것이다.

그러나 보는것처럼 박근혜는 자기의 엄청난 죄악을 반성할 대신 아직도 민의에 역행하여 동족 대결의 악습과 《체제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이번 선거에서 표시된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또다시 동족대결의 악담을 늘어놓은것은 그 못된 버릇은 죽어야만 고칠수 있다

신기복

4. 19정신으로 민주, 평화를 이룩하자

남조선단체가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4월혁명회가 18일 서울에서 4.19민봉기 56돐과 관련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56년 전 독재와 불의에 항의하여 청년학생들이 3.15부정선거를 저지른 리승만독재 《정권》을 타도하였다고 말하였다.

가 결박당한듯 옴짝달싹 할수 없었다. 노래도 세상도 귀찮아졌다. 살아 무엇하랴싶어 생을 포기하려던 림하영은 최후의 시각 새 생명의 움직임에 멈칫하였다.

(아기에게 애무는 죄가...)

림하영은 이를 악물고 속다짐하였다. 배신으로 당한 수치와 아픔에 매없이 주저앉는 약자가 아니

그날의 정신은 5.18광주봉기, 6월민중항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은 4.13총선거에서 박근혜당을 심판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민주를 과파하고 민생을 파란내며 핵전쟁위기를 불러오고있는 박근혜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에게 희망이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위정자들이 국민기만극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생존권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전지역의 통성장을 찾아가 반성한다고 언명하였다.

앞을 보며 웃으랬다. 그

래, 나의 유일한 희망이

고생의 전부이며 내 마음

의 예수인 우리 정현이!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되

여 지친 어깨를 받쳐줄 착한 아들아, 너의 밝은 장

래를 이 어머니는 굳이 믿

는다....

림하영은 바람세찬 인

생길에 등불같은 아들애

를 위하여 동정도 비웃음

도 한몸으로 막으며 사생

라고 요구하였다. 56년 전의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구호는 오늘날 국민의 지향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든 향상세력이 4.19봉기자들처럼 싸운다면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위정자들이 국민기만극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생존권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전지역의 통성장을 찾아가 반성하겠다고 호소하였다.

집회에 이어 개성공업지구폐쇄, 북남관계위기와 관련한 강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어른스러움에 림하영은 속이 알찌근하였다. (학교에서 밀이 있었구나. 수학려행이라...) 암독수리마냥 지켜온 귀한 아들이었다. 림하영은 약해지려는 자신을 다잡으며 아들을 꾸짖었다.

《속대 왜 그리 연해? 그리구 일생에 한번뿐이잖아. 시야좁은 못난 사내 되지 말아.》

아들한테 라기보다 자신에게 하는 꾸지람이였다.

다음날부터 림하영은 바삐 다녔다. 새옷도 사오고 색다른 간식도 준비하고 여행비도 마련하였다. 누구에게도 짜져서는 안될 보배아들의 길차비였다. 힘에 부쳤어도 림하영은 기뻤다. 나래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을 아들에의 앞날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렇게 아들애를 제주도로 떠나보낸 림하영이였다. 《베리베리 -》

불현듯 귀전을 때리는 신호음에 림하영은 손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순간 온 얼굴에 웃음발이 퍼여 환해졌다. 고개를 기울이고 싱긋 웃음짓는 아들애의 모습이 손전화기화면을 가득 채웠다. 엎져 네부터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아들애의 소식이 이제야 당도한것이다.

편집위원회



라 배신을 딛고 일어서는 강자가 되리라.

(아가야, 너만 있으면 엄만 꼭 이겨! 부디 너도 이겨다오.)

림하영은 파렴치한 기만으로 순정을 짓밟고 반찬훔친 도적고양이마냥 미죽으로 달아빠는 어제 날의 남편을 쓰겁게 바라보았다. 돌아다보며 울기보다

보이는 적, 보이지 않

단편소설

봄을 부르는 소리 (1)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1

눈부신 아침이다. 쟁글쟁글 내려쪼이기는 하나 아직은 좀 새초롬해보이는 별이 창우리와 천정에서 아통인다. 반쯤 열린 창문사이로 안산교외의 청진한 대기가 흘러든다.

전자파아노의 건반을 살금살금 짚어가며 노래부르는 흰 쟈즈차림의 너인을 맞은편 벽거울이 통채로 비껴안고있다. 명색이 봄맞이공연이고 때도 화창한 계절이건만 봄기분을 모르는 그의 눈길은 악보대우의 오선지를 담담하게 풀어내릴뿐이다. 이따금 손전화기쪽에 귀를 강구다가는 미간을 살짝 찌프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악단성원들이 제가끔 진을 치고서 《쿵짜쿵짜 쿵짜짜...》 하며 아침부터 법석 끊는 건너방들파는 대조적인 흐름이 안온한 방안을 감돌고있다.

길가에 들어진 붉고 흰꽃가지들이 한들대며 마음들쌍하게 하는 이 봄날, 련습실에 불박히 공연준비에 열중하고있는 이녀인은 림하영이다. 살짝 들어진 직업에 세련된 행

동... 하건만 림하영의 배경은 버들가지처럼 희친 흥한 총각애로 너무나 왜소하다.

못내인들처럼 림하영에게도 현정으로 가슴을 먹이던 처녀시절이 있었고 찬란파 시샘의 눈길들이 엇갈리던 혼례식이며 새살림의 꿈에 부풀던 신혼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 달짜기근한 《사랑》 타령으로 《영원한 행복》을 운운하던 남편도 있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애정에 주려온 림하영은 순진하게도 무아경에 빠져 아무것도 분별 할수 없었다.

어느날 이 모든것이 별안간 신기루마냥 없어졌다. 일찍 파부가 된 어느 재벌의 5촌조카딸에게 훌쩍 옮겨간 위선자, 극단한 리기에게 물젖은 비렬한이 바로 림하영의 첫사랑이였다. 재력도 없고 세출도 없는 무명가수인탓에 림하영은 단증을 다 뺏리운 껌처럼 버려진것이다.

창줄간에 들쓴 오육으로 림하영은 향변 한마디 못하였다. 천길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에 사지

어진것 같은 절망에 사지

결단으로 기량훈련도 하고 무대우에도 뛰어올랐다. 사생활의 밝은 면보다 그늘면이 더 시시콜콜 풀어지는 영화배우로의 등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름아닌 아들애를 위해서였다. 그 나날 림하영은 뜻시선을 오연히 굽어보며 행소할줄 아는 담찬녀성으로 변모되었다.

보이는 적, 보이지 않